

##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예, 주님!

Yes, Jesus!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고후 1:18)

## 크리스마스 메시지④ (금요찬양집)

- ① 크리스마스 선지자(이사야 2:1~5)
- ②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준다(태살로니가전서 3:11~13)
- ③ 아직도 세미한 음성(이사야 11:1~10)

## 분열과 파멸(빌립보서 1:3~11)

양생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파괴하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는 것들이다. 생명의는 실존적인 한 존재다.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결속되어 있다. 성경 전체가 독립적인 동시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본체를 이룬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엇인지도 나누어서 정확할 수 있는 데까지 분열시키기를 즐긴다. 믿음까지도 다양성, 특이성, 또는 분열을 넘어선 통일성, 단일화 시켜 과소 평가하기를 원한다.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크고 좋은 면은 곧 나눌 수 없다.(고전 14:3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뉘음을 초월한다.(롬 3:22,27,3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그 양과 또 허다한 유기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의는 이 유기적인 존재들을 운행시키는 원동력이다. 오늘날 신자들은 성경 안에서 자신의 성격과 문화와 조건 속에 잘 어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만을 고집한다. 무한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경을 선택하고 교훈을 삼는 이들도 많다.(빌 4:13)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는 것은 성경을 파멸시키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토속 신앙이다.(마 6:33) 성경을 인간중심적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구원자 없이 성경에 기록된 율리만을 주장할 수 있던 말인가! 살아가는 동안,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삶의 고통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던 말인가!(요 3:12,16) 성경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요 3:17~19) 그러나 인간은 약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빌 1:3~6) 그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빌 1:10~11) 우리들은 모두 이 한 복음에 참여하여 섬기는 자들이다.(롬 1:2~6)

오늘날 설교자들이 바울의 서신을 크리스마스와 연결하여 설교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느덧 불기 시작한 선선한 바람이 폭염과 지루했던 장마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그렇게 쉽지않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합니다.(엡 2: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마 16:24) 이 시대의 여러 고성(수 6:20) 주위를 돌며, 이 시대의 풀무불(단 3:23) 속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수 6:6)를 앞세우며 믿음(단 3:18)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기도회가 하루의 출발선이 되길 원합니다. 수요일·2부 예배와 크리스마스 메시지·찬송으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거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골 2:15) 매주일 부활의 예수님이 홀리신 보혈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2007년 하반기 선교와 2008년 선교를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막 16:15)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 주님!"

함답다. 그 이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에 관하여 좁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서는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4복음에서 기록된 이야기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빛이 아니라 하나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에 관하여 쓰여진 것이 넷인 것이다. 복음 역시 복음은 하나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롬 1:15~17) 크리스마스 안에 있는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크리스마스와 부활, 어둠과 빛, 속박과 해방, 유대인과 이방인, 목자와 양, 마굿간과 별, 아기와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와 맺은 관계를 기뻐하며 동등한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린다. 주석가들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쓰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왜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 빌립보교회의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기쁨의 단어를 많이 썼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그의 삶은 한 가지로 묶여 있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고전 2:1~2; 빌 1:21,27,29)

갈라디아서를 빼놓은 나머지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항상 감사함이란 어휘가 담겨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맺은 그 복음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말씀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물질적으로 바울을 계속 도왔다.(고후 11:9; 빌 4:10)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모하였다.(빌 1:8) 이 말씀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다. 때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 주고 있다.(빌 2:1) 비록 빌립보교회에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서신에 나타난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함같이 주고 있다.(빌 2:5~8)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된다. 문화와 환경과 윤리가 아닌 바울의 철저한 복음의 간증이다.(갈 2:20)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1세기의 빌립보에 살지 않았고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들도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 동역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문제 해결 대신에 기뻐해야 하는 기쁨 그 자체임을 기억하자.(빌 4:4~7) 아멘.



# THE GOD WHO IS THERE

***"Now the Spirit of God came on Azariah the son of Oded, <sup>(2)</sup>and he went out to meet Asa and said to him, "Listen to me, Asa, and all Judah and Benjamin: the LORD is with you when you are with Him. And if you seek Him, He will let you find Him;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 <sup>(6)</sup>And nation was crushed by nation, and city by city, for God troubled them with every kind of distress. <sup>(7)</sup>But you, be strong and do not lose courage, for there is reward for your work."(2 Chronicles 15:1~7)***

Many of David's descendants did not practice the faith, like King Asa's father, but King Asa of Judah "did good an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2 Chr. 14:1~2) He created a revolution! Whatever bad job his ancestors made, he cleaned it up and commanded Judah to seek the Lord God and to "observe the law and the commandment." (2 Chr. 14:3~5) God blessed their actions by giving them rest on "every side," enabling them to build and prosper their nation. (2 Chr. 14:6~7) The devil came back again, using a neighbor with an "army of a million men and 300 chariots." (2 Chr. 14:9) The people of Judah were scared. Asa did not trust his own people, he only trusted God. He prayed,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o help in the battle between the powerful and those who have no strength; so help us, O Lord our God, for we trust in You, and in Your name have come against this multitude. O Lord, You are our God; let not man prevail against You." (2 Chr. 14:11) Asa focused on God, and God helped him, "So the Lord routed the Ethiopians before Asa and before Judah, and the Ethiopians fled." (2 Chr. 14:12) They experienced the biggest victory. As soon as they returned home, God sent His prophet, not to say that they did a good job, but to remind them that God is with them when they are with God.

Before Asa's reign, Judah was in terrible condition. Asa came in and fixed things and everybody hated him, but he focused on God and God gave him success. For ten years now, I have preached the cross and gospel of Jesus Christ. I have pleaded with you not to look at the world, but to look to God. We have obeyed and many people hate us for it. To date, we have sent out 10,000 missionaries and are operating with one mind in unity, but my dear friend God is telling us that we need to seek Him. Our God is the God who is there. Do not look at the money, fame, and success of our efforts, please focus on God. Like Asa, God is sending His servant to tell us to seek the Lord, "Listen to me, Asa, and all Judah and Benjamin: the Lord is with you when you are with Him. And if you seek Him, He will let you find Him;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forsake you." (v. 2) God is available in any situation, so you must always focus on Him.

How wonderful is it to know that God is available? Is not that good news? If you want to be with God, He wants to be with you. Human nature makes us want to be strong, rich, have a good family, big house, etc. In our efforts for success, we reach out to politicians and business executives, and most often cannot get an appointment, but if we are fortunate we may be able to schedule a short segment of their time. There is no real hope in that, but as for your God, He is always available. If you really seek the Lord there is real hope. He

answers all prayers. He is a Living God who loves you. This is the best news, better than announcing a cure for cancer, better than ending violence and crime, and better than acquiring great wealth. This wonderful news tells us something about God. He is not only the Creator God, He is the Caring God. He is not only the Lord God, He is the Loving God. He is not only the Supreme God, He is the Sympathizing God. This great God is the God who is there anytime and anywhere.

How wonderful is it to know that God is available to sinners and backsliders? The thief on the cross said to Jesus,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Jesus told the thief,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2~43) The Israelites threw away the Law, but in their distress they turned to God and He let them find Him. Jesus was available to beggars, lepers, and blind men. He is available to children. He is available to you.

How wonderful is it to know that God is available to those who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If your heart and soul truly desires to meet with God, then He will meet with you, "But from there you will seek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find Him if you search for Him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Deut. 4:29) Jeremiah 29:13 says,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And Matthew 5:6 says,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Please, seek after Jesus Christ. There is no room for hypocrites or for playing church, like many of today's Christians. A seeking Savior meeting a seeking sinner brings salvation. Will you come to Jesus with all your heart? Those who come in faith are never turned away,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 10:9~13)

My dear friends, I know many of you are practicing the faith. You are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Our church has peace, but we cannot be proud, we must be constant seekers of the Lord. If the enemy is prancing around you, do not be discouraged or depressed, only seek the Lord. If you have sinned, confess your sin. If you have backslidden, then come back to the Lord. Please seek Jesus with all your heart. He has given this message to us as a church and as individuals. Let us not be proud, but humble. This earth is filled with many, many bad things until Christ returns. Please take comfort and courage in knowing that God is there with you. Amen. 

## 다음 주일 설교

##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①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②”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게 하였음이니라 ③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1~7)



김성관 목사

다윗의 자손들은 대부분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사는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  
의를 행하여”(대하 14:2) 그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행  
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을 척결하고 백성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대하 14:3~5) 하나님은 이 같은 일  
을 행한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셔서 나라를 굳세게 하였습니다.  
다.(대하 14:6~7) 그러자 마귀는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송”을 거느린 구스 사  
람 세라를 이용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대하 14:9) 유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 때 아사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  
했습니다. 아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께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  
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  
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  
14:11) 아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주셨습니다. “여  
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  
이 도망하는지라”(대하 14:12) 그들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  
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큰 일을 했다고 들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사가 즉위하기 전 유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십 년 동안 십  
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상을 바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지만 일부 사람들  
이 그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 만 명의 단기 선교사  
들을 파송했고 지금도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  
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나 명예, 우리의 노력  
에 의한 성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사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  
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  
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  
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2절) 하  
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강하고 부유하  
기를 원하며, 행복한 가정,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  
해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과 접촉하려고 애를 쓰지만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혹은 운이 좋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을 할애받을 뿐입니다. 하지

만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  
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때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니다. 이것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것보다, 범죄와 폭  
력이 근절되었다는 것보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놀  
라운 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 거기에 계시니다.

##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죄인이나 타락한 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  
하시라 내 마음을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2~43) 이  
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그들은 하  
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나, 문둥병  
자, 논 된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  
수님은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  
러분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여  
러분을 만나주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  
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 4:29) 예레  
미야 29:13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리고 마태복음 5: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구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처히가 배부를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십시오. 위선자들이나 오늘날  
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취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실 곳은 없습  
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전  
심으로 예수님을 나아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  
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만일 구원을 얻으리니 … 누구든지  
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  
으로 주님을 찾아가 합니다. 대적이 여러분 주위를 날뛰며 돌아다니더라도 낙  
심하거나 위기소침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또 다시 범죄했더라도 주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십  
시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많은 죄악들이 관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9. 12.)

## 저희의 하나님 (히브리서 11:8~19)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 줄을 우리가 아니나 보이는 것은 나타나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다. 하나님과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저희의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아벨(히 11:4), 에녹(히 11:5), 노아(히 11:7), 아브라함(히 11:8), 사라(히 11:11),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히 11:6)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 곧 '저희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저희가 이제 는 나 나 온 본향을 사보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만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저희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희의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혹시 학업, 사업, 건강 등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히 11:1)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값을 받는다.(롬 5:1)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엡 2:8-9) 우리의 노력, 지식, 경험, 공로는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1-3)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히 11:8) 비록 앞 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로지 순종하였다. (히 11:9) 아브라함은 믿는 하나님의 경역하라고 지을 터인 것이었다. (히 11:10)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

히 하실 이에게"(엡 3:20)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좋으시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때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정확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사라는 믿었다. (히 11:11) 그러나 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에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창 18:12)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자 사라는 핑계를 대었다. (창 18:15)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능력을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을 한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1-22)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저찌처럼 작은 믿음이다. (마 17:20) 자신이 세워놓은 세상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거사사신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눅 8:37)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거창한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실로 회개하자. 오직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해 간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좋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러나 사라는 막상 이삭을 낳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려 했다. 이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이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삭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창 21:12)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히 11:1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히 11:19)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

'저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좋으시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하나님'은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처소를 주신다. 이제 '저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리라.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자.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 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거룩한 신생 예수여 늘 함께 계시어 주 말씀 따라 살도록 늘 알게 하소서."(찬 239장) 아멘.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18교구

예수님께서는 주신 명령(마 16:18)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18교구에서는 동지국과 영동교구에 소속된 일꾼들이 복음으로 나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걷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지역장, 부지역장, 남부 구역장, 권할 및 남부 전도회가 하나 되어 각 가정의 신앙 형편과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을 확인하고 독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18교구는 628명의 성도들이 260세대, 6개 지역 2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제1교육관 401호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교구가 개편된 후로 아직 서머서머키하고 하회관 교구 영성훈련 및 지역을 중심으로 찬양을 통하여 온 교구식구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싶어하는 양들과 잠자는 영혼들을 찾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8교구 모든 식구들은 매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진 일에

희생을 다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질병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구역모임을 통하여 집안의 가장인 남성도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온 식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자녀들이 속한 교회학교에 출석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환우들, 또한 단독세대 성도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전화심방 또는 직접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돌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주변 전도와 교회 내 자원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새가복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양육부장과 지역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은하신 지성명령을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매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태식(정로, 18교구장)



## [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고 ]

##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귀한 생명들



지난 5월에 있었던 초등부 새생명 전도주일에 초등부에 다니는 유림이는 같은 반 친구인 도은이를 전도했습니다. 그후 매주일 아침 유림이의 부모님은 도은이의 집에 가서 도은이를 차에 태우고 교회에 옵니다. 지난 주일, 교회설립 54주년을 기념하여 가족연합예배를 드려던 날에도 유림이가 가족, 도은이 그리고 선생님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 오늘은 본당에서 연합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조금은 떨렸지만 기뻐요. 도은이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기뻐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도은이도 같이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어요. (김유림)

\* 유림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뻐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려서 좋아요. 오늘 가족연합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족도 하루 빨리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김도은)

\* 유림이와 도은이를 보며 어린이들의 믿음에 도전을 받아요. 새가족인 도은이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불교신자이신 할머니께서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도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도은이를 통해 도은이네 가족이 구원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연합예배를 드리니 더욱더 믿음이 간절해지네요. (최옥숙 초등부 교사)

\* 예배를 드리며, 찬양대에서 있는 유림이를 보면서 유림이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네요. 이렇게 가족연합예배를 드리니 가족 모두 같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감사합니다. 유림이와 도은이가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시은 집사)

\* 가족연합예배를 드리며 어린 영혼들을 보니 그 믿음과 사랑에 감복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와 같은 어른들이 있는데,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김봉화 집사)

##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신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아들의 선택에 있었습니니다. 그는 2004년 7월 당시, 고3의 나이에 '골육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부모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별래민도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찬송가 529장과 말씀(마 8:16~17 : 뱀전 2:24)을 붙잡고 눈물로 애통하며 큰 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나의 아들 같은 그는 2007년 8월 16일,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천국을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같은 은혜를 체험한 뒤 우리 가정은 더욱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기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8박 9일 동안의 식구들 밥 걱정, 수능 불발 도시락 걱정, 남편의 허락, 아침에 일어날 걱정, 언어 걱정, 국내에서도 부모님도 아직 전도 못 했는데... '내가 이거 괜히 깨기 부린 거 아닐까? 안 간다고 할까?'라며 고민하던 차에 드린 가족연합예배는 저의 선교 결심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말씀이 대답이였습니다. 다. 간절한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일어나라. 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지하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의 심령에 깊이 사무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내 안을 가득채웠던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소'니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길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이처럼 말씀이 주는 은혜로 풍성한 가족연합예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진구(권술, 3교구)

## Yse, U [예수] 전도집회를 마치고

처음에 저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마흔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저였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맡기며 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변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영적인 염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 달 동안 사랑과 기도로 아기를 품고 만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엄마처럼 저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집회 준비와 더불어 교회주변 전도를 병행하였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역삼역 주변으로 출어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눌한 입술, 용기 없는 마음이 자주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자가 들고 나간 것은 몇 말의 전도지가 전부였습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입술은 불어리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동행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다. 전도를 하면 많은 순간 거절당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십자가 증인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마음 밖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어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도를 마친 저의 안에는 기쁨이 넘쳤고, 전도를 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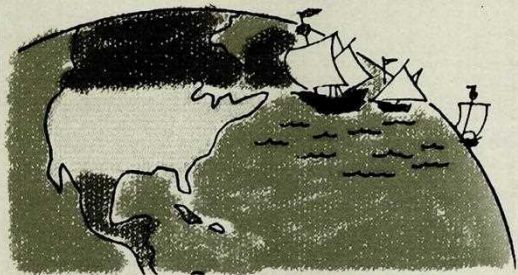
전도집회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초창된 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만이 새겨지고, 저들의 이름이 방명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초창된 자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쁨이 부족한 저희에게도 전해졌고 이러한 천국천지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전도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Yse, U 전도집회는 끝났지만 전도자로서의 제 사명은 계속됩니다. 주변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며, 끝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에게 전도의 사명과 특권을 주신에 감사하며 꽃대를 향하여 달음질 해 나가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병희(청년1부)



## 중인들의 고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복음의 일꾼들,  
그들이 전하는 생생한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 ◆ “얼마나 다급하고 압박하였으면 아무 힘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 들어 쓰실까?” 주님께서서는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몸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복음만 전하니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내심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수자 기사)
- ◆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박대하고 모욕하였던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천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승이 학생)
- ◆ 비록 정복에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감사하게도 이곳 영혼들의 마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은 듯했습니다.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음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복음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담겨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희찬 학생)
- ◆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알리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매순간 성령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김하영 학생)
- ◆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신향원 교사)
- ◆ 줄줄 흐르는 땀속에서도 감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주님은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경희 권사)
- ◆ 선교 6월째 되는 날, 우리들은 섬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현지인 말로는 그곳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섬 안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게 하셨습니다. (김성준 집사)
- ◆ 흉악해 보이든지, 아파서 누워있든지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문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영접기도를 드렸고, 준비해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쁨으로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특별히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잡고 찬송가 525장을 부를 때는 눈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필구 안수집사)
- ◆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다. 강력한 성령의 힘에 의해 발견ados 가 버려졌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최명호 권사)
- ◆ 내 손에 차를 함께 타고 마을까지 인도한 소녀, 마루에 앉으라고 안내하고 “아면”하던 아저씨, 마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되내었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홍백기 권사)

- ◆ 선교지가 뒤늦게 변경되어 밤을 세워 언어를 외워도 나이가 팔십이 다 되어서인지 잘 외워지지 않고 힘들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보니 단련시킨 후에 엘리야에게 가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봉순 은파권사)
- ◆ 십씨 40도의 뜨거운 속에 먼저 풀뚫 나라는 울퉁불퉁한 길을 2시간씩 가야 했다. 팀원들이 자기부인이 되지 못한다면 충분히 불행불만이 나왔겠지만 우리를 태운 구원의 차량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가운데서도 은혜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다. 사막은 아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최현의 집사)
- ◆ 내 솜씨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해야 하는데, 또 저기 있는데...” (민병욱 집사)
- ◆ 무더위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가정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길에서... 부지런히 옮기는 그 발걸음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서서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할 때 그 여인이 흘린 눈물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전도언어를 함께 따라와치는데 마치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소리 같았습니다. (김영호 권사)
- ◆ 11살 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창한 언어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줄줄 암송하였다. 그 아이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고, 이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사역자의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기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마을을 방문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역의 진정한 사역자는 주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세영 안수집사)
- ◆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뚱을 밟고 다닐 정도로 열렸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고,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지일 학생)
- ◆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신 것 같다는 말에 동감하자, 그러한 사역중에 서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사역이 거듭될수록 운전기사가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고, 어눌한 발음을 정확한 말로 통역해 주는 우리를 돕는 사역자가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신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온통 맡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서병환 집사)
- ◆ 나는 부족한 도구였지만 나를 통해 늘 사역하셨던 성령님을 느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대대함을 하라하셨다.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주님은 나에게 순교의 마음을 하라하셨다. 죽음에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실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눌한 나의 입술도 주님이 만지시어 그들의 영혼에 들리게 하는 음성이 되게 하셨다. (전진구 학생)
- ◆ 나를 보고 손자녀처럼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선교나가실 거예요?” 하기에 “힘이 들어서 어려운 것 같다.”고 했더니 대답 “하나님께서 힘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힘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말에 나는 나의 약한 믿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발을 듣지 않아서 고집쟁이 청개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 사역을 잘 담당하였습니다. (황은희 권사)
- ◆ 문을 힘차리 열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 열린 문만큼이나 마음 속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서복은 집사)
- ◆ 처음에는 남편과 사역기간이 중복되고 혼자 두어야 하는 고3 아들 때문에(물론 할머니께서 돌봐주셨지만)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편한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역이었습니다. (채은실 집사)



##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쁘다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 사람은 아니겠지 했던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셨다. 때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이의 부름으로 어른의 부름으로 가정을 방관케 하셨다. 이들이 주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어쨌든 말이었지만 그들은 잘 따라하였고,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찬양도 기꺼이 따라했다. 못해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쁘다는 것을 그 영혼들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안 예배하시겠느냐?" 한 팀원이 말했다. 정말 이렇게 예쁘고 귀한 영혼을 때문에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나 보다.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가 곧 삶이어야 하고, 삶이 곧 선교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예스다(집사, 20교구)

## 함께하심

첫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와서 집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한 뒤 권사님께서 정신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가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는 수술한 배를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음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다가 머리를 다쳐서 걱정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를 통해 복음과 찬양을 쉽게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대문을 나오는 그 순간, 성령님은 저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최명희(집사, 3교구)

##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35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한 번도 선교를 가지 못했고 선교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만 생각했다. 찬양대 중창팀에서 선교를 함께 가자고 했을 때도 나는 이미 막 속에 '나는 못'이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마음을 바꾸셨다. 직장 문제가 걸렸지만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 둘 결심을 하며 선교를 결정했다. 물론 현재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다. 3개월 간의 선교 훈련 기간은 버차고 힘든 시간이었다. 남편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선교를 가기로 3주전부터는 어지럽고 열감이 떨어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고,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사역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 계시고, 전날에 전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다시 만나게 하여 전하게 하셨다. 선교는 선교지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오정선(집사, 16교구)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 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9월 3일(월) - 9월 11일(화) | 16교구 | 박성명 |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 팀 (3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9월 21일(월) - 9월 28일(일) | 8·5·7·18·19·21교구<br>청년1·2부 연합 | 이기욱 |
| 9월 21일(월) - 9월 28일(일) | 15·1·6·11<br>18·23교구 연합       | 이홍우 |
| 9월 22일(월) - 9월 29일(토) | 15교구<br>청년1·2부 연합             | 장철환 |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 라오디게아교회 (요한계시록 3:14~22)



라오디게아교회 유적(터키)

라오디게아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마지막 수신자로, 영적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전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산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차지도 더듬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 또한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위선으로 가득했으니 복음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악에 대해 무기력하며, 복음에 대해서는 열의를 내지 않으며, 선에 대해서는 냉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셔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계 3:17a)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계 3:17b)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곤고함에 대하여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회를 향해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나태와 위선과 교만과 아집과 거절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진실으로 돌아켜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요하게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풍요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속죄받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의 태도와 영적 벌거벗음, 수치와 부끄러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복음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교회가 아닌 확실하는 복음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열명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고 약속 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미지근하고 온전치 아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삼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안치현(목사, 2교구)

###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 번호   | 성 명   | 교 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 명 | 교 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 1425 | 윤지    | 25  | 외선부  | 최규재(2)  | 1443 | 이연희 | 2   | 청년2부 |         |        |
| 1426 | 김다은   | 25  | 외선부  | 최규재(2)  | 1444 | 한정운 | 1   | 청년2부 | 강두형(24) |        |
| 1427 | 이진우   | 2   | 청년1부 | 임태주(1)  | 1445 | 박희복 | 21  | 청년2부 | 박옥자(8)  |        |
| 1428 | 고은경   | 2   | 청년1부 | 임태주(1)  | 1446 | 고영희 | 13  | 고등부  | 박효지(13) |        |
| 1429 | 이성민   | 2   | 대학부  | 임태주(1)  | 1447 | 나성민 | 1   | 대학부  | 김정호(1)  |        |
| 1430 | 홍기아   | 25  | 외선부  | 최규재(2)  | 1448 | 이복희 | 9   | 청년2부 | 이형훈(9)  |        |
| 1431 | 홍준    | 25  | 외선부  | 박재순(9)  | 1449 | 백병연 | 2   | 대학부  | 한민교(24) |        |
| 1432 | 이보민비트 | 25  | 외선부  | 신상미(21) | 1450 | 백병하 | 1   | 소망부  | 구원식(1)  |        |
| 1433 | 다희수련  | 25  | 외선부  | 조화연(1)  | 1451 | 백   | 전   | 25   | 외선부     | 전옥순(1) |
| 1434 | 나리후   | 25  | 외선부  | 최규재(2)  | 1452 | 정여진 | 4   | 중등부  | 전혜정(15) |        |
| 1435 | 하호나   | 25  | 외선부  | 최규재(2)  | 1453 | 정우진 | 5   | 중등부  | 이슬이(22) |        |
| 1436 | 남영희   | 9   | 청년3부 | 이형애(9)  | 1454 | 전현수 | 19  | 중등부  | 이민욱(19) |        |
| 1437 | 오선정   | 1   | 청년2부 | 신상미(21) | 1455 | 신   | 환   | 9    | 청년1부    | 이복연(9) |
| 1438 | 박용규   | 3   | 청년3부 | 최희태(3)  | 1456 | 전준호 | 11  | 청년1부 | 김재욱(9)  |        |
| 1439 | 한희희   | 6   | 청년1부 | 김규석(1)  | 1457 | 김은정 | 9   | 청년1부 | 김재욱(9)  |        |
| 1440 | 전수현   | 17  | 고등부  | 신영현(14) | 1458 | 박상섭 | 20  | 청년2부 | 김민준(20) |        |
| 1441 | 전현희   | 22  | 대학부  | 박정희(4)  | 1459 | 이하나 | 20  | 청년2부 | 김종민(20) |        |
| 1442 | 김영민   | 16  | 예배대부 | 조종숙(2)  |      |     |     |      |         |        |



